

30사 BEST, 감사인

아버지~ 건강하셔서 큰소리로 자식들에게 야단 많이 쳐주세요~

올해의 서순재 드림 S-OIL

서울 26~35℃ 경기 25~35℃ 날씨 13면

1920년 4월 1일 창간 제28307호 40판

donga.com

2012년 8월 3일 금요일 단기4345년 (음력 6월 16일 丙申)

(새누리 총선 공천위원) (前 대표) (비례대표 의원)

## 현기환-홍준표-현영희 檢, 공천헌금 수사 착수

“현기환 3억 - 홍준표 2000만원 현영희에 받은 혐의”  
 “선진당에 50억 약속” 김영주도 조사... 내주부터 소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 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은 같은 당 비례대표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3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3면에 관련기사·본보 2일자 1면 참조

선관위는 당 대표 후보 출신의 조모 씨와 홍준표 전 대표도 수사 의뢰했다. 조 씨가 3월 중순 현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같은 달 말에는 현 의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현 전 대표에게도 전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에 50억 원을 빌려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에게 차입금 제공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선진당 당직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새누리당 사건은 부산지검에, 선진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배당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자료 분석과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부터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및 출국 금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정국에 매가 톱급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당연히 검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공천 비리에 대해 박 의원이 책임을 지고 당이 먼저 조사해 깨끗하게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천 헌금 의혹에서 비켜 간 민주통합당은 “당시 최고지도자인 박 의원이 이 일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날 현 의원은 “혐의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임을 양심과 정치적 생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라고 했고, 현기환 전 의원은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최유열 기자 dnp@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펜싱 신데렐라 김지연(24)이 2일 영국 엑셀 런던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2 런던 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결승에서 러시아의 소피야 벨리카야를 15-9로 꺾고 우승을 확정 한 뒤 환호하고 있다. 신에 김지연은 빠른 발을 앞세운 적극적인 공격 스타일로 한국 여자선수로는 처음 올림픽 펜싱 정상에 올랐다. 런던=연합뉴스 ▶올림픽 관련기사 4·5·24·25면

## 아무도 몰랐다

펜싱 김지연-사격 김장미-유도 송대남... 무명3총사 '깜짝 금메달'



무명의 설움을 날려 버렸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깜짝 스타가 무더기로 탄생했다. 사격 여자 25m 권총 김장미(20·부산시청), 유도 남자 90kg급 송대남(33·남양주시청),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김지연(24·익산시청)이 잇달아 금메달 낭보를 전했다. 정진선(28·화성시청)은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격 대표팀 막내인 김장미는 지난해까지 해도 국제무대 출전 경력도 없었다. 본선에서 591점을 쏘아 1위로 결선에 진출하고도 경기 막판

리수까지 감행하며 올림픽 무대를 밟았고 강자들을 차례로 꺾고 정상에 섰다. 백미는 한국의 6번째 금메달의 주인공 김지연. 플레어로 펜싱을 시작했다 부산디자인고 1학년 때 뒤늦게 사브르로 전환한 그는 정식 국가대표가 된 지도 1년을 갓 넘긴 생짜 무명. 하지만 이 겁 없는 신에 앞에 강자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준결승에서 맞붙은 매리얼 재거니스(미국)는 세계랭킹 1위이자 2004년부터 올림픽 2연패한 여자 펜싱계의 전설. 그런 선수에게 김지연은 경기 초반 5-12까지 뒤졌다가 기적처럼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15-13으로 승부를 뒤집었

다. 결승에선 세계 2위 소피야 벨리카야(러시아)를 15-9로 제압했다. 김성규 기자 kimsk@donga.com

메달 순위 (2일 오후 9시 현재, 한국 시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7	9	4
2	미국	13	8	9
3	한국	6	2	4
4	프랑스	5	3	5
5	북한	4	0	1
6	독일	3	8	2
7	이탈리아	3	5	2
8	카자흐스탄	3	0	0
8	남아공	3	0	0
10	일본	2	4	11

이 경기 놓치지 마세요

3일 (한국 시간) **임동현, 오진혁 김법민**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 (오후 11시 37분)

## 미사일 사거리-미군 개편 협상 올스톱

美 “한국대선 쟁점화는 안돼” 군사현안 논의 잠정중단-연기 차기 정부와 결론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올해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미 양국 간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한 협상을 잠정 중단하거나 합의 발표 시기를 대선 이후로 늦추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미 간 민감한 군사 현안들이 대선에서 정치 쟁점화될 경우 반미감정을 비롯해 한미 관계에 초래될 파장을 우려한 조치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개편

이나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양국 간 협상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한미 군 당국은 주한 미2사단 개편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양측은 지난달까지 미2사단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한미 연합부대로 만들어 한강 이북 지역에 그대로 주둔시키는 방안을 놓고 심도 깊게 협의해 왔다. 기존 한미 간 합의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경기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돼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미2사단의 연합부대화 방안이 2015년 12월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전력 공백 우려를 불식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공

감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군 고위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선을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더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에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편 문제가 정치적 이슈나 국가적 찬반 논쟁으로 비화될 경우 초래될 반미 감정 등 후폭풍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미2사단 재편을 비롯한 주한미군 관련 협상은 현 정부에서 더이상 진척시키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근 주한미군 관계자로부터 ‘한국의 차기 정부와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대만인사협회 대표보고서발행 제 12022-승-2748호

무릎·어깨 부평 힘찬병원

(032)363-9123 부평역 이용

2면으로 이어집니다

2030 특 토크 TALK TALK 박근혜-안철수 장단점은 29면

## 결혼식도 경매로 하는 시대

불황이 낳은 일들 웨딩족  
 예식장 입찰받아 최저가 선택  
 예물-허니문은 소셜커머스로

최근 서울 광진구 W웨딩홀에서 결혼한 이모 씨(28)는 ‘웨딩 경매’로 식장을 싸게 구했다. 여러 예식업체

의 입찰을 받아 최저가를 써 낸 곳을 고르는 역(逆)경매를 활용한 덕이었다. 이 씨는 “마침 예식이 취소된 한 업체가 홀 대관료를 무료로 하고 고객 식대도 깎아 줘 3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불황의 여파가 예비부부들에게도 미치며 웨딩 경매 등으로 결혼비용을 아끼는 ‘웨딩 프라브족’(PRAW·

싸게 사는 데서 만족을 찾는 실속파 소비자)이 늘고 있다. 취업난, 주택난에 놓인 인터넷 세대가 만든 새로운 결혼문화라는 분석도 나온다.

▶8면에 관련기사

웨딩 경매업체 아이티웨딩의 이행욱 실장은 “인터넷 최저가 비교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소비문화에 불황이 겹치며 최근 일주일 동안 220여

건의 신규 입찰이 등록될 정도로 입찰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 티켓몬스터 등에서 소셜커머스로 혼수품을 할인받는 것도 인기가. 쿠팡은 4월 예물, 허니문 등을 모은 웨딩기획전으로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이수민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32면 발행 경제 18·19면  
 Weekend 30 습니다

6th ANNIVERSARY

2012년 10월, 대한생명이 한화생명으로 새출발 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더욱 밝아지도록 한화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한화금융네트워크 한화생명